

이 “국정 안정·민생 추경” vs 권 “정치공세 탄핵 철회”

이재명

권성동

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만남

李 “국정 안정 협의체 참여하라” 국힘 “의원총회 거쳐 화답하겠다” 헌법재판관 임명 등은 논의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처음 갖는 공식적인 자리다.

권 권한대행이 최근 원내대표에 뽑힌 후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돼 야당 대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남이 이뤄졌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국무위원 탄핵안 14건을 발의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안을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이 마비된 상태.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 성격의 탄핵소추는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며 발언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국무위원 탄핵안 14건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여서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자신이 제안한 ‘국정 안정 협의체’에 참여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1·2당과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서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실제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필요한 부분까지도 다 양보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 교섭단체로서 실질적인 협의를 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의

원총회를 거쳐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제일 중요한 건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며 “국정이 매우 불안하고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 조속히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선 국회의장이 제안한 계엄 사태 국정조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의 재의요구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 대표 수행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자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만난 자리에서 “위대한 국민의 투쟁으로 일단 내란의 불은 꺼가고 있지만 큰 산이 남아있다”며 “양당이 함께 이 위기를 현명하고 신속하게 넘자”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강조했던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노란봉투법, 거부된 법안 중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들은 조속히 협심해서 다시 통과시켜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의원 12명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왼쪽부터 서삼석, 주철현, 김원이, 안도걸, 정진욱, 문금주, 조계원, 전진숙, 조인철, 정준호, 권향엽, 김문수 의원.

지역 국회의원 12명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

서삼석·주철현·김원이·안도걸 정진욱·문금주·조계원·전진숙 조인철·정준호·권향엽·김문수

서삼석, 주철현, 김원이, 안도걸, 정진욱, 문금주, 조계원, 전진숙, 조인철, 정준호, 권향엽, 김문수 국회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보고서와 언론 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우수의원을 뽑고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광주·전남 지역 의원 12명이 수상했다.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3선)은

이번이 7년 연속 수상이다. 충실한 정책적 대안과 제도 개선 촉구를 통해 농어민 대변인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3차례 수상에 이어, 재선 의원 임기 첫 해인 올해도 선정됐다. 당 최고위원과 전남 도당위원장 등 당내 요직을 맡아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활동하면서도, 농해수위에서 돋보이는 정책 국감을 보여줬다.

김원이(목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신안과 목포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대폭 삭감한 지방 중소기업 연구 개발 예산을 되돌려 놓으라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우수의원엔 선정된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경제통’이자 ‘재정전문가’로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탁월한 국감 실력을 뽐냈다.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은 식품업계 대기업인 ‘일동후디스’가 광주지역 청년기업인 ‘썬아이밀’이 등록한 ‘아이밀’ 상표를 침해한 소송전을 중재해 썬아이밀에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업 환경 조성을 위해 맹활약했다. 벼멸구 피해 상황을 집중 조명해 재해를 인정받는 성과를 올렸다.

불법 수산물의 무분별한 온라인 유통 실태 적발부터 정부 TF 출범, 민관협약 체결, 관련 법 개정까지 불법 수산물 유통

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은 이번 국감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조계원(여수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청소년 도박문제와 수도권 중심 대형 문화예술 인프라 프로젝트 집중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은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우수의원엔 선정됐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후퇴, 공공성 약화, 재정 안정화에만 치우친 국민연금개혁안 등을 중점 지적했다.

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 전문성과 성실한 의정 활동이 인정받았다. R&D(연구&개발) 예산 복구 및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과학기술 생태계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 주력했다.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국토교통위에서 젊은 ‘야당 선봉장’으로 윤석열 정

부의 편법과 부실 등 실정을 파헤쳤다.

대통령실이 국토교통부 예산을 불법 전용해 추진한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무자격 업체의 용역 수주와 관련된 문제를 밝혀내며 229억 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계획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와 끊이지 않는 카르텔 의혹, 허술한 심사로 금융 범죄에 이용당한 정책금융기관 등 불합리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고들어 효과적인 대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여순사건 교과서 왜곡과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문제 등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위원회에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

“최연장자 직무대행해 진행” 박찬대 “국힘 빠져도 청문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지원(사진)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임명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되자, 최연장자인 박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인사청문회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특위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어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 의원은 1942년생으로 22대 국회의원 중 최연장자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임명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국 “외풍에 흡지만 폭 잤다… 부재 메워달라”

당원들에게 옥중서신 보내

조국(사진)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국의 부재를 메워달라”며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옥중서신을 보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서울구치소에서 온 조국 대표의 편지”라며 조국혁신당 공식 계정에 올랐던 조 전 대표의 옥중 메시지를 공유했다.

서신은 변호인 접견 당시 구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조 전 대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의원 및 당원 여러분께’라는 제목이 달린 서신을 통해 “16일 아침 추운 날씨에도 배웅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인사하지 못하고 들어와 미안했다”며 “모두의 얼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구치소에)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구치소는) 바깥에 비해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다. 그러나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한다”며 “담요 위 잠자리라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쓰고 자야 했지만, 첫날 밤 많이 잤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 창당, 총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등 일련의 과정을 회상하며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었다. 큰 기쁨이자 뜨거운 감동이

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의원들과 당원들에게는 “다시 시작”이라며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이어 60일 뒤 대선”이라며 “내란 수괴를 비롯한 쿠데타 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재 결정과 수사에 맞설 것이다. 또 내란 공범 정당은 가만히 정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저는 이곳(구치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다들 저 대선 더 열심히 해 달라”며 “조국의 부재를 메워 달라. 당원 배가 운동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개혁과 정권교체, 사회개혁 등에 앞장서줄 것도 당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